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임동욱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1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의 대권 주자들도 잇달아 출마 선언에 나서면서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한 대선 구도는 여론의 '박근혜 대세론'에 맞서 야권은 '안철수 카드'를 바탕으로 역전을 노리는 형국이다.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역대 개혁 진영의 집권에는 일정한 법칙이 작용했다. 호남·충청의 연합과 영남 갈라치기, 수도권 표심의 지지가 있었다.

예측불허 대결구도 형성될 듯

지난 97년 대선에서는 DJP 연대(김대중-김종필 연대)와 함께 영남 표심을 이끈 후보(득표율 24.6%)가 잠식했다.

2002년 대선에서는 호남이 노풍(노무현 바람)의 진원지가 됐고 행정수도 공약을 바탕으로 한 충청이 가세했다. 김해 출신인 노 전 대통령은 영남에서 25.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지역 민심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는 수도권 표심에도 영향을

미쳤다. 김대중 후보와 노무현 후보는 당시 수도권에서 각각 3.7%포인트, 6.3%포인트 차이로 신승을 거뒀다.

이렇게 하고도 개혁 진영은 전국적으로 39만표(1.3%포인트), 57만표(2.3%포인트)라는 박빙의 차이로 승리했다. 이는 개혁 진영이 총력전을 펼쳐야 보수 진영에 맞설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이 같은 법칙은 2012년 대선에서도 유효할 전망이다.

2012 대선의 법칙

그동안 민주통합당 등 개혁 진영이 보여준 역량 부족 때문이다.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통합 과정과 전략도, 감동도 없었던 총선 공전, 정치공학적 구도를 벗어났지만, 민주당의 원내대표 및 당 대표 경선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 '한'과 사람 사는 세상을 추구한 노무현 후보의 '눈물'로 대변되는 내부적 치열함과 절실함도 찾아보기 힘들다. 야권연대 대세론'에도 불구하고 유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퇴행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발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으며,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젊은 세대의 투표 참여도 늘어날 전망이다. 보수 진영과 한 관 승부를 겨룰만한 기본적인 여건이 형성된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안팎에서는 대선 막판에 접어들면 보수와 개혁 진영 후보의 1대1 구도가 형성되면서 예측불허의 팽팽한 접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다.

그동안 민주통합당 등 개혁 진영이 보여준 역량 부족 때문이다.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통합 과정과 전략도, 감동도 없었던 총선 공전, 정치공학적 구도를 벗어났지만, 민주당의 원내대표 및 당 대표 경선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 '한'과 사람 사는 세상을 추구한 노무현 후보의 '눈물'로 대변되는 내부적 치열함과 절실함도 찾아보기 힘들다. 야권연대 대세론'에도 불구하고 유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 개혁 진영의 대선 승리 전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당내 경선에서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촉구하며 "이번 대선은 박근혜 대박근혜의 싸움"이라고 주장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개혁 진영의 대선 승리는 내부적 치열함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적 치열함이 전제돼야

시대적 요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미래 가치를 내세운 치열한 경쟁, 단 한 표라도 더 끌어오려는 헌신 등 내부적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안철수 교수의 후보 단일화 등 개혁 진영이 어떠한 카드를 동원한다고 해도 국민적 지지를 견인할 수 없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변화를 주도할 사람들이 시기를 기다리거나 한다면 결국 변화는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들이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찾는 변화다"라고 주장하며 민심의 변화를 주도,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

결국, 개혁 진영의 2012 대선 승리의 법칙은 외부적 여건에 앞서 내부적 치열함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 반발을 촉구한다.

(서울취재부) tuim@kwangju.co.kr

시설

수십억 들인 광주 폴리 홍물 전략이라니

광주시가 추진하는 '광주 폴리(Folly)'가 홍물로 변하고 있다. 광주 대표 어린이자 도심 중추 문화관광상품으로 키워내겠다는 애초 취지는 온데 간데 없고 젊은이들의 낙서장으로 바뀌는 등 애물단지로 전략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환경연합 등에 따르면 28억 원을 투입해 광주시에 11개의 폴리리를 설치했지만 장동사거리 후안 해로로의 '소통의 오두막'을 제외하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당초 취지를 살릴 활성화 방안이 없어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시아문화전당 인근 프란시스코 사신의 폴리인 '사랑방'은 홍물로 변한 지 오래다. 낙서로 가득하고 주변엔 현란한 그래피티까지 더해지면서 지역민들의 '사랑방' 역할은커녕, '혐오시설'이라 할 정도다.

더욱이 낙서를 지우는데 1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다음달부터 1000만 원을 들여 야간경비까지 세울 계획이라니 할세 낭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 환경연합 등이 26일 '광주 폴리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시민포럼을 연 것으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사랑방' 뿐만 아니다. 승효상씨 '푸른길 문화센터'는 개방이 안돼 발길이 끊겼다. 문화재단의 '광주 폴리투어'도 지난 4월 첫 '체류 투어'에 참가자가 없어 무산되는 등 외면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시의 활성화 방안은 전무하다. 올 폴리 예산 5400만 원 중 청소비 2600만 원, '사랑방' 보수비 1000만 원, '사랑방 야간 경비 용역비' 1700만 원을 제외하면 콘텐츠와 연계 관광상품 개발은 입도 못 낼 수 없다.

폴리의 설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구체적인 활용 계획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래야만 시민들의 삶 속에 녹아내리는 공공시설물로 사랑을 받지 않겠는가.

'워크아웃' 금호타이어 파업은 안된다

경양만으로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노사 갈등으로 인해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노조가 지난 20일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면서 다음달 2~3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계획하는 등 파업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임금 13% 인상과 워크아웃 기간에 반납하기로 한 기본급·상여금 회복 및 성과급 지급, 해고자 원직 복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2010년 워크아웃 개시 당시 합의했던 기본급·상여금 삭감 등 임·단협 준수와 노사동시 및 특별합의서의 성실 이행 등을 촉구하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노조의 파업 수순 돌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3월 노사간의 갈등으로 직장폐쇄에 들어가면서 워크아웃 중단을 하지 않으면 공멸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경양만으로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노사 갈등으로 인해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노조가 지난 20일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면서 다음달 2~3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계획하는 등 파업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임금 13% 인상과 워크아웃 기간에 반납하기로 한 기본급·상여금 회복 및 성과급 지급, 해고자 원직 복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2010년 워크아웃 개시 당시 합의했던 기본급·상여금 삭감 등 임·단협 준수와 노사동시 및 특별합의서의 성실 이행 등을 촉구하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노조의 파업 수순 돌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3월 노사간의 갈등으로 직장폐쇄에 들어가면서 워크아웃 중단을 하지 않으면 공멸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은편칼럼



류동훈

지난주 일요일에 아이들과 함께 극장에서 애니메이션 영화 '마더가스카'를 보았다. 뉴욕 동물원에 살다가 아프리카로 돌아간 동물들이 다시 뉴욕을 그리워하며 돌아오고 싶어한다. 동물들은 다시 돌아가기 위한 전략으로 서커스단에 들어가게 되는데, 서커스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아 당황하고 두려워한다. 이때 사자와 표범이 나누었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

"우리 동물들에게는 인간에게는 없는 열정이 있다. 우리는 서커스를 해 보자" 동물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서커스를 성공시킨다. 영화를 보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성공한 동물이 되자

인간과 동물 중 누가 더 나을까 고민해 보았다. 그런데 순간 인간도 동물의 한 종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은 인간이 기 전에 먼저 동물의 한 종류인 것이다.

최근 한국은 인구 5000만을 돌파했다. 1인당 소득 2만 달러에 인구 5000만을 보유한 2050클럽에 진입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저출산고령화가 대단히 심각한 나라이다.

2010년 기준으로 한 가족당 출산율이 1.23명으로 세계최저 수준이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0년 545만명, 2040년 1650만명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미래 세대가 젊어질 노년부양비(15세~64세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수)는 일본(63.3명)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부부가 둘이 결혼해 결국 1.23명의 아이를 낳고 인생을 마감한다. 그런데 동물들 중 한 쌍이 만나 2개체 이상 낳지 않는 동물이 있는가?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종족을 보존

확대하기 위해 최소한 둘 이상은 낳아서 번식을 한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겨우 하나를 낳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대로 가자면 인류는 언젠가는 멸종하는 것이 아닌가?

행복한 가정의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아이들이다. 아이들의 재능이 가족이 웃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부는 행복을 키워간다. 때론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 괜히 낳았다고 자책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인간이 저승 갈 때 남기고 가는 것은 자녀와 이름 석 자이다.

최근 대선의 계절이 다가와 대선 후보들의 자녀를 분석해 보았다. 편의상 종친은 생략하고, 안철수 1녀, 문재인 1남1녀, 김두관 1남1녀, 손학규 2녀, 김문수 1녀, 정몽준 2남 2녀, 박근혜 미혼이다. 재벌로 불리는 정

몽준 후보를 제외하고는 둘 이상의 자녀를 가진 후보는 없다. 이분들이 대선 후보로 거론될 정도 되면 인간으로서의 상당히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물의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 과연 성공한 동물로 분류될 수 있을까?

민간이 협력하여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하고, 여성들이 아이를 기르고 나서도 취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갓난아이 때 아이를 기르기가 힘들어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니, 갓난아이에 대한 보육 지원이 많아져야 한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부모나 가족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도 적절한 지원이 따라야 직장을 휴직하고 여성들이 쉽게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사랑의 열매 셋째가 감히 성공한 동물의 척도인 기준이라고 말하고 싶다. 필자도 아이가 들인데 성공한 동물이 되고 싶다.

(행복문화사업단 단장)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지현아

"6·25 전쟁을 일으킨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 괴뢰도당을 우리의 손으로 처단하자!" 북한에 있을 때 학교에서 항상 6·25 때면 결의대회에서 외치던 구호였다. 북한에서는 6·25전쟁을 복침이라고 가르친다.

필자는 북한에서 19년을 성장해 오면서 정치적 세뇌교육을 여덟 해부터 받아왔다. 탈북과 복속을 반복하면서 이러한 세뇌교육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북한의 거짓교육은 한반도의 역사를 거짓으로 남기게 하고 북한주민들을 거짓으로 매수하였다. 중국에서 북한에서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남한의 문화를 알게 되었을 때, 남한 입국 후 6·25 전쟁이 남침이라는 사실 등 우리나라 역사의 모든 진실들을 알았을 때의 충격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남달랐다.

필자는 탈북자다 북한의 독재자에게 나의

6·25 전쟁에 대한 거짓과 진실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와 인권을 유린당해 나의 자유를 찾으려 나의 조국인 대한민국으로 온 탈북자다.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자유를 외쳤다. 현대 민주통합당의 임수경 의원은 이런 탈북자들을 '변절자'라고 지칭했다.

우리 탈북자들의 인권이 무참히 임수경 국회의원에 의하여 짓밟혔다. 순진한 백성을 학살하는 북한의 독재자를 반대해 나온 우리 탈북자들을 "변절자"라고 하는 임수경은 그럼 누구인가?

1989년 북한에서 세계 13차 청년학생 축전이 진행되었을 때 남조선의 대학생 임수경이 제 3국을 거쳐 북조선으로 왔다면서 북한의 언론과 북한 주민들은 분주했다. 흰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단발머리 대학생이 한반도 깃발을 흔들며 축전장에 들어서는 순간 북한주민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어린 나이에 통일을 위하여 어려운 역경을 뚫고 나온 장한 소녀가 너무 고마웠다. 한 권으로는 남조선으로 돌아가면 그녀는 북한처럼 사형을 당하는 줄 알았다. 청바지를 입은 임수경은 남조선이 못사는

나라가 아님을 알려 준 그야말로 '통일의 꽃'이었다.

관문점을 통해 돌아갈 때 손을 흔들며 눈물을 흘리는 임수경을 보면서 북한사람 모두가 눈물바다가 되었던 그때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하여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은 임수경의 안부다. 하지만 임수경에 대한 탈북자들의 좋은 이미지는 임수경이 구겨놓았다.

독재를 등지고 온 탈북자들을 '변절자'라고 한 임수경은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의 매체인 '우리 민족 깨리'의 글을 복사해서 올려놓는 등 종북주의자의 모습을 보였다.

임수경의원은 진정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자격이 되는 시민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할 것이다.

탈북자는 '변절자'가 아니다. 북한의 독재에 맞서 싸우는 장한 영웅들이며 장차 있게 될 '통일한국'의 일꾼들이다.

우리 나라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허술했는가? 내부 분열책동에 의해 패망한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 북

한에서 보내오는 간첩들과 종북주의자들은 대한민국을 위협하게 한다. "국가의 패망은 내부의 분열로 된다"라고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말했었다!

국가가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북한의 독재를 반대해 탈북한 한 사람으로써 어렵게 찾은 자유를 이런 식으로 또다시 잃고 싶지 않다.

북한을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에게 말하고 싶다.

"고난의 행군"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고 300만 명을 죽인 북한의 통치자들에게 정녕 머리를 숙이고 싶은지를, 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경솔했던 행동들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가끔 인터넷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글들을 접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안보 현실이 걱정되고 안보교육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이 나라를 지켜야 할 사람들도 국민이기에 국민은 종북세력들이 추종하는 모든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또한 탈북자들의 인권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데도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광주전남 탈북자 강제복속 중지위원회 대표>

화장품 성분 표시하고 최소한의 부작용 알려줘야

화장품을 쓰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불만은 화장품 광고나 실제 판매되는 화장품 성분 표시는 물론 부작용 등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말로만 써 놓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화장품 광고 문구가 "어린 아기부터 연세 높은 어르신까지, 스킨같은 기초 화장부터 메이크업까지"라는 식으로 동

서고급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 잘 맞는 화장품이라는 식으로 선전을 한다.

대부분의 화장품은 일부 색소나 알코올 등의 정말 최소한의 성분만을 마치못해 표기 한 채 자극적인 모벌과 과장된 설명홍보로 일관한다 보니 누군들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또 "식약청 허가" "00대학 00학과

000 교수팀 피부부 테스트 완료" "오직 천연 성분, 오일 프리"란 말 등으로 현혹하는 문구들도 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고객들이 듣기 좋게 꾸며 놓은 말들만으로 피부에 선뜻 마르게 하는 상술, 100ml도 안 되는 양에 몇만 원 몇 십만 원을 불리는 브랜드회사의 화장품 등에 소비자들은 매일 속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은 화장품의 주요 성분의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무런 덜 자극적인 화장품이라도 반드시 최소한의 자극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도 성분을

표시한다. 특히 우리나라 화장품은 무자극이란 말을 아무 거리낌없이 사용하고 있지만 무자극이라는 부분은 성분이 수십 개 이상 들어가는 화장품에서 사실상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절대 쓸 수 없는 말이다.

화장품은 개인마다 피부 특성마다 전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고려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약간의 트러블이나 자극이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판매시 반드시 성분 표시는 물론 최소한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하는 것이다.

▲주연실·광주시 동구 신수동

無等鼓

1970년 한겨울 차가운 비가 추추추추 내리던 12월 7일의 한낮. 서독 총리인 빌리 브란트는 수행원들과 함께 폴란드 바르샤바의 국립묘지를 찾았다. 그곳은 나치에 의해 희생된 40여만 명의 전쟁 피해자를 추모하는 묘역이었다.

무거운 표정으로 현화를 마친 뒤 몇 발짝 뒤로 물러서 목념을 하던 총리의 무릎이 갑자기 꺾였다. 차갑게 젖은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은 총리의 두 눈에서는 참회의 눈물이 흘러 나왔다. 모어선 사진기자들은 일제히 셔터를 눌러댔고 다음날 그 사진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독일인들은 냉담했지만, 정작 사진을 접한 폴란드와 유럽인들은 진심 어린 브란트의 사과와 참회를 받아들였다.

유럽의 언론은 이렇게 평했다.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 이 일로 인해 전세계는 독일을 용서하고 이웃으로 받아들이었다. 브란트는 이어 1973년엔 이스라엘을 방문, 나치가 유대인에게 저지른 만행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 이스

총리의 눈물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亮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광복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내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체팀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